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조중신문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기관지

제81호 [루계 제23398호] 주제100 (2011)년 3월 22일 (화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 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뛸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나라에서 널리 보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수 없다』를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가 최근 인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를
일을 이루어하나』를 조선인민과의
친선문화현대성에 이파드로 파란다면
의 적력에 대한 칭송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에 높이 울려 나오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

기념도서들로 써야, 벌가리아에서 출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 기념도서들이 『영원한 회망의 태양』, 『김정일시대의 조선』, 『친근한 어버이』, 『김일성주석』, 『20세기의 위인을 모시고』, 『멀고도 가까운 조선』 제2부 『선군정치』가로 써야와 벌가리아에서 출판되었다.

『영원한 회망의 태양』, 『김정일시대의 조선』의 필자들은 또한 세계인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암살책동을 짓는 부서비리에 강성군건설의 세시 대를 펼쳐진 경애하는 장군님을 21세기의 가장 걸출한 정치가로 열렬히 홍모하면서 현시대를 김정일시대로 부르고 있는데 대하여, 승승장구하는 선군조선의 현실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전 벌가리아 김일성 학원 원장

도서에 선교과 일심단결로 준엄하고 백승멸치는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우신

『친근한 어버이 김일성주석』과 『20세기의 위인을 모시고』에서 벌가리아에 깃든 철세위인의 별명의 사적을 소개하면서 경애하는 수령님이 시야말로 만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시는 인류의 태양이시라고 높이 칭송하였다.

벌가리아작가 아파니스 이와노브는 도서 『멀고도 가까운 조선』 제2부 『선군정치』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독창적인 선

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이 미제와

조선사람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민족주정신, 대를 이어

싸워서라도 기어이 나라의 해방을 이룩해야 한다는 계속혁명의 사상,

지원의 사상과 더불어 무궁번영할 조선

국제사회계의 반향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험난한 력
사의 새벽길을 헤치시며 조선혁명
의 중국적승리를 담보하는 고귀한
사상 정신적제보를 마련해 주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
의 적력에 대한 칭송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에 높이 울려 나오고 있다.

매히고 주제사상연구소는 불례전
에서 김형직선생님은 조국의 군사
적강점으로부터 조국을 독립하기
위한 투쟁에 한생을 다 바치신
조선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다. 그이께서는 오늘 사
회주의조선의 지도사상, 지도리념
으로 되고있는 주체사상, 선군사상
의 사상정신적원천을 마련하시였다

우루파이신문 『라 후벤푸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동지들을 찾아 핵심으로 육성
하고 군중적지반을 축성하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1917년
3월 23일 조선국민회를 결성하
시였다.

조선국민회는 전민족이 일심단결
하여 조선사람사회체의 힘으로 나라
의 독립을 이룩하여 참다운 문명국
가를 세울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일
지하혁명조직이였다.

이 조직의 결성은 외세의 존립
배격하고 온 민족의 단합된 힘
으로 나라를 독립하려는 선생님
의 결연한 반제 반주사상과 그

실천을 위한 간고한 투쟁의 결
실이였다.

파키스탄신문 『발루치스탄 타
임스』는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조
선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을 민족주
권운동으로부터 무산혁명에로 방
향전환하는데 선구자적역할을

하였었다. 불과 서른두해밖에 안
되는 젊은 생애였지만 선생님께서는
현대조선의 력명을 안아오는 력
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다고 전

하였다.

로씨아주체사상연구협회 위원
장은 김형직선생님께서는 국제적
으로 블 때에도 신민지민족해방
투쟁문제가 크게 제기되지 않았
던 그 시기에 벌써 민족해방운동
동발전을 위한 참다운 길은 민
족자주적인 투쟁의 길이라고 밝
히하였다.

조선국민회는 전민족이 일심단결
하여 조선사람사회체의 힘으로 나라
의 독립을 이룩하여 참다운 문명국
가를 세울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일
지하혁명조직이였다.

이 조직의 결성은 외세의 존립
배격하고 온 민족의 단합된 힘
으로 나라를 독립하려는 선생님
의 결연한 반제 반주사상과 그

에 질질조선친선협회는 불례전에
편집한 글에서 김형직선생님께서

이루하신 특기할 업적은 김일성주석

본사기자

김철의 실천력으로 대고조의 승리를 안아올 드높은 열정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진군길에 이룩된 또 하나의 경사

함흥모방직공장에서 떠섬유에 의한
비날론설생산체계 완성, 비날론천생산 시작

공업도시 함흥에서 인민생활향상에

이비지 할 자랑이 또다시 생겨났다.

우리 인민들에게 절생은 옷감을 더
많이 안겨주시려는 위대한 김정일동지
의 애민의 뜻을 달고 함흥모방직공
장의 일군들과 동계급이 결사편찰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여 비날론미첨유
에 의한 실생산공정을 훌륭히 꾸리고
비날론천생산을 시작하였다.

경찰방직장이 개건되어 비날론천
뿐 아니라 비날론에 의한 그 어떤 천도
마음먹은대로 짧을 있는 토대가 마련
됨으로써 우리의 비날론이 인민생활
상과 나라의 공업발전에서 큰 은운을 내
게 되었다.

2. 8비날론천합기연소에서 현대적
인 비날론공장을 일떠세워 16년만에
비날론을 생산하기 시작한 지난해의
대경사에 이어 대규모의 천생산기지
함흥모방직공장에서 17년동안에 다시
비날론천생산기지를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은 우리 인민의 흥할 래일을
약속해주는 또 하나의 경사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제는 우리 인민들이 실제로 비
날론력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년원
을 현실로 꽂아워 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불면불휴의 정력적
인 행동으로 비날론폭포를 마련해주신데
이어 비날론천생산을 위한 투쟁을 현
명하게 이끄셨다.

인민들이 실제로 비날론력을 입에

해야 한다고 하시며 비날론천생산기지
를 우리 실정에 맞게 꾸리기 위한 사
업을 세심히 보살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손길아래 함흥모방직공장에
대비역의 기상이 나래쳤다.

지난 시기 인민들의 입는 문제해결
에서 큰 역할을 해온 공장에서는 당

의 의도대로 비날론천생산체계를 우
리 식으로 완성하기 위한 큰걸음을

내짚어야 했다.

지난해 3월 현대적인 비날론공장준
공을 경축하는 함흥시 군중대회에 몸소
참석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련
계밀에 기술개조에서 제기되는 과학기
술 문제들을 자체로 해결하면 서

140여 종에 근 100만점에 달하는
중요부속품과 기료품들을 성과적으
로 축하해주신 크나큰 은정은 새로운 비
의 원동력으로 되었다.

작업현장의 온습도를 효율적으로 보
장하기 위한 기술개조사업과 동력과
내부당공사도 힘있게 추진되어 생산공
정개선을 앞당겨 끌낼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마련되었다.

공장의 일군들과 동료들은 수십대
의 섬유가공설비들을 2. 8비날론천
합기연소에 이설설치하기 위한 방대한
공사도 동시에 내밀어 생산공정을 합
리적으로 완비할 수 있게 하였다.

중앙과 도의 일군들이 공장로동계급
의 설비개조사업을 적극 도와 동승기
적역할을 다함으로써 조작이 간단하면
서도 실리있는 떠섬유에 의한 비날론
천생산체계가 확립되었다.

기술개조사업이 단 1년동안에 성과
적으로 완수되어 고난의 행군으로 침
체되었던 경찰방직장이 새롭게 일신
되며 생산이 활성화되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께서는 최근 함
흥모방직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조
국의 부강발전과 인민 행복을 위한
또 하나의 훌륭한 밀천이 마련된다며 대
하여 만족해하시면서 이곳 일군들과
동료는 기쁨이 일떠서 용을 쓰며 인민의 천만
가지 행복이 활짝 풀려날 뻔한 영예의 데일
을 앞당겨줄것이다.

강성대국의 명예로운 천생산기지가

이제는 우리에게 되었다.

우리가 경찰방직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조국의 부강발전과 인민 행복을 위한

또 하나의 훌륭한 밀천이 마련된다며 대

하여 만족해하시면서 이곳 일군들과
동료는 기쁨이 일떠서 용을 쓰며 인민의 천만
가지 행복이 활짝 풀려날 뻔한 영예의 데일

을 앞당겨줄것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께서는 최근 함
흥모방직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조
국의 부강발전과 인민 행복을 위한

또 하나의 훌륭한 밀천이 마련된다며 대

하여 만족해하시면서 이곳 일군들과
동료는 기쁨이 일떠서 용을 쓰며 인민의 천만
가지 행복이 활짝 풀려날 뻔한 영예의 데일

을 앞당겨줄것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께서는 최근 함
흥모방직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조
국의 부강발전과 인민 행복을 위한

또 하나의 훌륭한 밀천이 마련된다며 대

하여 만족해하시면서 이곳 일군들과
동료는 기쁨이 일떠서 용을 쓰며 인민의 천만
가지 행복이 활짝 풀려날 뻔한 영예의 데일

을 앞당겨줄것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께서는 최근 함
흥모방직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조
국의 부강발전과 인민 행복을 위한

또 하나의 훌륭한 밀천이 마련된다며 대

하여 만족해하시면서 이곳 일군들과
동료는 기쁨이 일떠서 용을 쓰며 인민의 천만
가지 행복이 활짝 풀려날 뻔한 영예의 데일

을 앞당겨줄것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께서는 최근 함
흥모방직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조
국의 부강발전과 인민 행복을 위한

또 하나의 훌륭한 밀천이 마련된다며 대

하여 만족해하시면서 이곳 일군들과
동료는 기쁨이 일떠서 용을 쓰며 인민의 천만
가지 행복이 활짝 풀려날 뻔한 영예의 데일

을 앞당겨줄것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께서는 최근 함
흥모방직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조
국의 부강발전과 인민 행복을 위한

또 하나의 훌륭한 밀천이 마련된다며 대

하여 만족해하시면서 이곳 일군들과
동료는 기쁨이 일떠서 용을 쓰며 인민의 천만
가지 행복이 활짝 풀려날 뻔한 영예의 데일

을 앞당겨줄것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께서는 최근 함
흥모방직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조
국의 부강발전과 인민 행복을 위한

또 하나의 훌륭한 밀천이 마련된다며 대

하여 만족해하시면서 이곳 일군들과
동료는 기쁨이 일떠서 용을 쓰며 인민의 천만
가지 행복이 활짝 풀려날 뻔한 영예의 데일

을 앞당겨줄것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께서는 최근 함
흥모방직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조
국의 부강발전과 인민 행복을 위한

또 하나의 훌륭한 밀천이 마련된다며 대

하여 만족해하시면서 이곳 일군들과
동료는 기쁨이 일떠서 용을 쓰며 인민의 천만
가지 행복이 활짝 풀려날 뻔한 영예의 데일

을 앞당겨줄것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께서는 최근 함
흥모방직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조
국의 부강발전과 인민 행복을 위한

또 하나의 훌륭한 밀천이 마련된다며 대

하여 만족해하시면서 이곳 일군들과
동료는 기쁨이 일떠서 용을 쓰며 인민의 천만
가지 행복이 활짝 풀려날 뻔한 영예의 데일

을 앞당겨줄것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께서는 최근 함
흥모방직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조
국의 부강발전과 인민 행복을 위한

또 하나의 훌륭한 밀천이 마련된다며 대

하여 만족해하시면서 이곳 일군들과
동료는 기쁨이 일떠서 용을 쓰며 인민의 천만
가지 행복이 활짝 풀려날 뻔한 영예의 데일

장군님

CNC

(16)

특별히 강조하신 참관일정

온 나라의 CNC화를 밟기 하신 때로부터 10여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짧고도 긴 이력사의 나날 장군님의 인생에서는 기쁨과 고뇌도 있었고 가슴벅찬 환희의 순간들도 있었다. 환희와 성공에 대한 기쁨을 안겨주는 그 하찮은 순간들 가운데서 제일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 바로 주체철성 공이었다.

오늘 새월 주체철을 목표로 끌어온 조선의 금속공업이 최첨단돌파전의 폭풍속에서 드리여 성공의 문폐를 달게 될 것이다.

북방의 하늘에서는 흰눈이 평평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마천령을 넘고 넘어 야전차를 달려시는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철의 기지로 동계급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차 있었다.

주체철의 완성과정을 보아주신 2009년 9월로부터 불과 몇 달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강철을 다룬 로동계급의 그 모습을 어디 가나 있을 수 없으셨던 그들이 그간에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어서 빨리 보고 싶으셨다. 강철은 강성대 국건설의 승리를 좌우하는 운명문제이기에 성강에 향하신 걸음은 더욱더 재촉이 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드디어 그처럼 보고 싶으셨던 주체철성 공정을 돌아보고 계시였다.

아버지 수령님의 유종이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송고 뜻인 주체철 완성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온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마음을 한없이 설레이고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2009년 9월에 기업소를 현지지도하면서 정련공정을 완성하면 다시 오겠다고 하신 강령적 과업을 펼쳐하기 위하여 이곳 로동계급은 100일동안의 전투원에 정련공정을 끝내 완성해놓았던 것이다.

장군님 서계시는 바로 앞에 정련로가 있었다.

로에는 죄물이 한창 익어가고 있었다. 환원공정에서 직접 질 좋은 강철이 생산되는 광경이었다.

세상에 있어 본적 없는 강철생산방법이었다.

장군님, 금속으로서 이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철입니다. 합금만 넣으면 질은 더 말할 것 없고 중금속에 오염되는 것도 없습니다. 이런 강철로 생산한 강재는 자기의 기계적 성질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말드드는 기업소지 배인의 온몸에는 어버이장군님께 승리의 보고를 드리는 기쁨이 출렁이고 있다.

이때였다. 머리 회색한 일군이 큰소리로 아뢰었다.

«장군님, 지금 질 좋은 철이 나오고 있습니!»

노출처럼 누렇고도 밝은 죄물이 자기의 분출구를 찾은 듯 가슴후련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우리의 철이었다.

순수한 우리의 자원으로 만들어낸, 100% 우리것이라는 온 세상에 말할 수 있는 주체의 강철이었다.

비로 이 강철의 성공을 위하여 유명무명의 과학자들과 로동자들이 헌신하고 열마쳤고 바친 고비는 또한 열마쳤던가.

아버지 수령님의 생활을 위하여 대오를 이끌고 한걸음 더 이렇게 마음속에 의지를 가다듬으며 완강하게 걸어 오신 길이었다.

장군님께서는 젓어드는 회의의 감정 속에서 거듭 거듭 외우시였다.

«우리의 철이요. 그야말로 순도높은 우리의 주체철입니다.»

한 일군이 장군님께 아뢰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의장에게 위문전문을 보내였다

일본 도쿄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의장

서만술동지 앞

나는 일본 도호구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넓은 지역에서 대지진과 해일로 그곳 총련조직과 동포들 속에서 많은 인적 및 물적피해를 입였다는 소식에 접하여 총련중앙상임위원회와 피해지역 총동포들과 동포들에게 심심한 애도와 동포에 적위문을 보냅니다.

뜻밖의 들이 달친 대지진과 관련하여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긴급대책을 세워 피해지역 동포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벌리고 있는 것은 총련조직의 단합된 위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봅니다.

나는 총련의 모든 조직들과 동포들이 불굴의 의지와 뜨거운 동포애, 단합된 힘으로 지진 피해를 하루빨리 거기고 안정된 생활을 이룩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 100 (2011) 년 3월 21일 평양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끊임없는 전선길을 이어가며 병사들에게 끈기 있는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의 자축마다에는 그 얼마나 만사람의 기쁨을 뜨겁게 울려주는 이야기들이 많이 새겨져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에게 대한 사랑과 믿음을 김정일동지의 정치에서 기본 특징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몇몇 전 11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새로 건설한 어느 부대의 협소목장을 돌아보실 때의 일이다.

협소목장에서 많은 향의 첫째 가공품을 생산하여 군인들에게 공급한 경형에 대하여 보고

리들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아직도 요란한 행정사에 대한 조직사업을 하고 계시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단단히 내겠습니다는 것입니다.»

장군님의 목소리는 더 크게 울리었다.

«영접준비! 단단히 해야겠소.»

이렇게 말씀하신 장군님께서는 무엇을 하나 잊으셨던 듯이 «아, 그리고...» 하시면서 한 책임일군을 불러세우는 것 같았다.

«특별히 강조할 것이 있습니다.»

독서리를 짚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에 일군은 물가침을 바로하고 장군님의 말씀을 기다렸다.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일군들도 긴장하여 다음 말씀에 마음을 집중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려 한 일군들에게 큰소리로 이렇게 당부하시는 것이었다.

«성강로동계급에게 CNC공장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제친장치를 비롯하여 이제 더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강의 로동계급에게 CNC화된 공장을 꼭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최승기 박사가 본다면

나라의 대경사, 민족의 대경사가 되지 게 되었다.

아버지 수령님의 유종은 짐장에 암으로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그에 맞아 주체철장을 소리없이 놀리었다.

승리자들에게 대한 표장이 오만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성강에서의 주체철승리를 3차례 시험보다 더 위대한 승리라고 표현하시였고 주체철장장제를 확립한 성강의 로동계급은 당을 받드는 최전선에 선 가장 훌륭한 로동계급이라고 높이 평가 하시였다.

«주체철을 완성한 사람들을 평양에 초청합니다.»

내가 초청하겠소.»

이렇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중앙의 책임일군에게 구체적으로 방향을 주시였다.

나의 초청으로 평양에 오는 성강대 표단

으로서 맞이해야 한다는 것, 평양시 환영대

회도하고 성대한 연회도 차리고, 주체철

이 어떻게 완성되었는가 하는 경험담도 말하고 이렇게 크게 떠들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방향을 주시는 속에서도 평가의 말씀은 계속되고 있었다.

«본문이 따로 없습니다. 성강로동계

급이 하는 말이 그대로 본문이 될것이

고 그들이 해놓은 일을 와서 협률로

보면 본문을 읽는 것으로 될것입니다.»

기업소의 일군들은 장군님의 높은 평가

에 너무도 활동하여 입이 떡 벋어버렸듯 하였다.

그런 기업소의 일군들에게 장군님께서는 «주체철을 한 사람들이 모두 봤느냐? 다 할 허시...»라고 재촉해 물으시는 것이었다.

일군들이 미처 생각을 달랠 새 없이

장군님께서는 또다시 말씀하시였다.

«천명도 좋고 2천명도 좋소. 무조

건 다 초청합시다.»

이어 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중앙의 일

군에게 이르렀다.

«본문이 따로 없습니다. 성강로동계

급이 하는 말이 그대로 본문이 될것이

고 그들이 해놓은 일을 와서 협률로

보면 본문을 읽는 것으로 될것입니다.»

기업소의 일군들은 장군님의 높은 평가

에 너무도 활동하여 입이 떡 벋어버렸듯 하였다.

그런 기업소의 일군들에게 장군님께서는 «주체철을 한 사람들이 모두 봤느냐? 다 할 허시...»라고 재촉해 물으시는 것이었다.

일군들이 미처 생각을 달랠 새 없이

장군님께서는 또다시 말씀하시였다.

«천명도 좋고 2천명도 좋소. 무조

건 다 초청합시다.»

이어 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중앙의 일

군에게 이르렀다.

«본문이 따로 없습니다. 성강로동계

급이 하는 말이 그대로 본문이 될것이

고 그들이 해놓은 일을 와서 협률로

보면 본문을 읽는 것으로 될것입니다.»

기업소의 일군들은 장군님의 높은 평가

에 너무도 활동하여 입이 떡 벋어버렸듯 하였다.

그런 기업소의 일군들에게 장군님께서는 «주체철을 한 사람들이 모두 봤느냐? 다 할 허시...»라고 재촉해 물으시는 것이었다.

일군들이 미처 생각을 달랠 새 없이

장군님께서는 또다시 말씀하시였다.

«천명도 좋고 2천명도 좋소. 무조

건 다 초청합시다.»

이어 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중앙의 일

군에게 이르렀다.

«본문이 따로 없습니다. 성강로동계

급이 하는 말이 그대로 본문이 될것이

고 그들이 해놓은 일을 와서 협률로

보면 본문을 읽는 것으로 될것입니다.»

기업소의 일군들은 장군님의 높은 평가

에 너무도 활동하여 입이 떡 벋어버렸듯 하였다.

그런 기업소의 일군들에게 장군님께서는 «주체철을 한 사람들이 모두 봤느냐? 다 할 허시...»라고 재촉해 물으시는 것이었다.

일군들이 미처 생각을 달랠 새 없이

장군님께서는 또다시 말씀하시였다.

«천명도 좋고 2천명도 좋소. 무조

건 다 초청합시다.»

이어 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중앙의 일

군에게 이르렀다.

«본문이 따로 없습니다. 성강로동계

급이 하는 말이 그대로 본문이 될것이

고 그들이 해놓은 일을 와서 협률로

보면 본문을 읽는 것으로 될것입니다.»

기업소의 일군들은 장군님의 높은 평가

에 너무도 활동하여 입이 떡 벋어버렸듯 하였다.

그런 기업소의 일군들에게 장군님께서는 «주체철을 한 사람들이 모두 봤느냐? 다 할 허시...»라고 재촉해 물으시는 것이었다.

일군들이 미처 생각을 달랠 새 없이

장군님께서는 또다시 말씀하시였다.

«천명도 좋고 2천명도 좋소. 무조

건 다 초청합시다.»

이어 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중앙의 일

군에게 이르렀다.

당의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일심단결의 위력을 더욱 높이 떨치자

제기 받는데 그치지 않고 풀어줄 때

제남한광초급당원회는 한학종동무의 사무실로는 매일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찾았고 있다. 혹 어떤 사람들은 그가 이곳에서 1년째 당일군으로 사업해 오면서 많은 사람을 알고 기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충분한 대답으로는 되지 않는다. 늘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고락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이 제기한 의견을 귀담아들고 물어주면서 보람을 찾는 그의 소탈한 사업작풍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생동한 사실이 있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일군들은 군중속에 들어가 군중의 요구를 알뿐 아니라 그것을 끌어내고 책임지고 물어주어야 합니다.』

온 탄광이 석탄증산투쟁으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고 있던 지난 1월 어느 날이었다. 100명에 들어가 생 산 설 래를 펼쳐보면 초급당일군은 굽진속도가 떠나고 있는 사설에 눈길을 돌리게 되었다. 굽진공들로부터 전차를 해결해 주면 굽진속도를 부쩍 높일 수 있다는 의견까지 받고니 생각되는 바가 많았다. 알아본데 의하면 생에서는 전차가 부족하여 버력을 미쳐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제남한광초급당원회

굽진공들이 탄차에 버력을 실고 밀고나가게 되었던 것이다. 굽진공은 선행하자면 버력을 처리해야 하였다. 그래서 굽진공들은 스스로 한 일이고 보면 크게 문제로 될 것은 없었다. 하지만 초급당일군은 그것이 막장에서 일하는 굽진공들이 제기한 의견이라는 점에서 생각이 깊었다. 막장실태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하는 사람은 직접 막장에서 일을 하는 굽진공, 체란공들이다. 체란생산을 늘리기 위해 일하는 굽진공들이 제기한 의견이라는 점에서 생각이 깊었다. 그들이 굽진공을 제기한 의견을 제때에 풀어준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들이 당일군들을 찾아와 의견을 제기할 때에는 당일군들을 믿기 때문이었다. 하기 때문에 이곳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은 군중의 의견을 제기한 막장에서 나오는 걸로 설비파와 공업시험소, 공무직장 일군들과 기술자,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무실과 현장을 찾았다. 초급당일군은 한 탄부로부터 목욕탕물의 수질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탄부에게 불편을 느끼고 고민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지나가는 소리로 한 말 같았지만 일군의 가슴에는 뜨렷이 새겨졌다. 그의 가슴속에서는 온 탄광 구내를 살피어 뒤져서라도 수없이 좋은 물을 찾으려는 탄부들이 위생문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겠다는 결심이 굳어졌다. 며칠 후 생에서는 열린

사업에서

협의회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탄부들은 저지기 놀랐다. 경의 일군들은 긴장한데 비쁜 고비나 넘기고 보자는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일군들에게 탄부들이 제기한 의견은 제때에 풀어주는 판점을 세워주어야겠다고 생각한 초급당일군은 협의회를 결속하며 이렇게 그를 밟았다.

『물론 생산을 중시하는 동부들의 립장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탄부들이 있어야 생산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난 모여 바빠 뛰고 있는 때에 우리 일군들이 한몫씩 맡아나선다면 능히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일군들을 불러일으킨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은 탄부들의 의견을 풀어주기 위한 일에 어깨를 끌어대었다. 경의 일군들과 함께 개인의 구석구석을 밟으며 끝내 땀을 흘려온 그들이 불편을 느끼고 고민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지나가는 소리로 한 말 같았지만 일군의 가슴에는 뜨렷이 새겨졌다. 그의 가슴속에서는 온 탄광 구내를 살피어 뒤져서라도 수없이 좋은 물을 찾으려는 탄부들이 위생문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겠다는 결심이 굳어졌다. 며칠후 생에서는 열린

보장방법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탄부들의 얼굴에서는 웃음꽃이 피었다.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은 이런 때가 제일 즐거웠다. 뒤이어 6·9경 9경에서도 공사가 진행되었다. 그에 대한 탄부들의 반영은 좋았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위대한 사상과 업적으로 승리하며 번영하는 조선

태양절에 즐음하여 에스빠나에 본부를 둔 조선파의 친선협회가 인터넷홈페이지에 기념글을 올렸다.

글은 김일성주석은 조선인민이 수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아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이 시며 인류의 짐장속에 영생하시는 주체의 태양이시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혀졌다.

4월 15일은 조선인민이 사회주의의 시조인 주체의 태양을 모신 대경사의 날이며 조선인민의 앞길에 자주, 독립, 발전과 무궁번영의 길이 활짝 열려진 끝은 날이다.

김일성민족의 혼업과 영예, 선군조선의 펠승불패의 위력, 인류자주위업의 창창한 앞날은 태양절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김일성주석을 높이 모시고 주체사상의 가치밀에 전진하였

조선파의 친

선협회 영국스페인드셔지부가 미국남조

선동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여 2월 28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북파, 남, 해외의 전체 조선인민이나의 통일을 그 어느 때보다 깊망하고 있는 지금 남조선당국은 미국과 아합하여 대규모적인 북침 합동군사연습을 벌리놓았다고 하면서 이것은 국도의 도발적인 성격을 떤 것으로서 조선민주주의

기에는 조선은 세기적인 창조와 혁의 영웅서사사를 수놓아 올수 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였다.

그이께서는 백관서적인 사상

리론은 조선혁명을 대로 이어

있기 위해 높이 모신 위대한

진보적인 인류의 앞길을 밝히는 등이다.

김일성주석의 위업은 김정일동지의 로숙하고 세련된 렇도에 의해 빛나게 계승완성되고 있다.

21세기는 김정일동지의 헌신하고 세련된 정치방식의 등대로 빛을 뿐이고 있다.

조선을 주석의 사상과 업적

으로 영원히 번영하며 승리하

는 김일성조선으로 빛내이시려는 것은 존경하는 김정일동지의 드림없는 신념이며 의지이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혁사상 처음으로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그이의 혁도령에 조선은 강성대국을 향하여 걸종같이 이달리고 있다.

그이께서는 끊임없는 혁지지도 강행군길을 이어 가시며 강한 공정성과 평활한 전략전술로 조선인민의 반제투쟁과 강성대국건설위업을 현명하게 이끌고 계신다.

조선은 김정일동지의 혁도

길에 세계가 우러르는 주체의 강성대국으로 거연히 솟아오른 것이다.

21세기는 김정일동지의 헌신하고 세련된 정치방식의 등대로 빛을 뿐이고 있다.

조선을 주석의 세기적인 경제

부가 『선군사상창시의 사회력 사적조건』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선군사상은 제국주의 자들의 침략과 약탈의 대상으로 되었던 조선의 사회력사적조건을 반영하여 창시되었다.

조선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애국자들은 『실력을 배양』하고 『청원』과 『외교』의 방법으로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조선인민의 밤투쟁은 결출한 혁도자를 모시지 못한 탓에 실패를 거듭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밤일민족 해방운동의 이현의 퍼의 교훈으로부터 무장투쟁으로써 만만조선을 해방하고 혁명을 전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결감하였다.

조선에서 창시되던 시기는

제국주의자들이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침략과

약탈에 미쳐 날뛰고 있던 때였다.

선군사상은 조선혁명의 기본

파업이 일제를 쳐부시고 나라

와 민족을 해방하는 것이였던 당시의 사회력사적조건을 반영하여 창시되었다.

조선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애국자들은 『실력을 배양』하고 『청원』과 『외교』의 방법으로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조선인민의 밤투쟁은 결출한 혁도자를 모시지 못한 탓에 실패를 거듭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밤일민족 해방운동의 이현의 퍼의 교훈으로부터 무장투쟁으로써 만만조선을 해방하고 혁명을 전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결감하였다.

조선에서 창시되던 시기는

제국주의자들이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침략과

약탈에 미쳐 날뛰고 있던 때였다.

선군사상은 조선혁명의 기본

파업이 일제를 쳐부시고 나라

와 민족을 해방하는 것이였던 당시의 사회력사적조건을 반영하여 창시되었다.

조선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애국자들은 『실력을 배양』하고 『청원』과 『외교』의 방법으로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조선인민의 밤투쟁은 결출한 혁도자를 모시지 못한 탓에 실패를 거듭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밤일민족 해방운동의 이현의 퍼의 교훈으로부터 무장투쟁으로써 만만조선을 해방하고 혁명을 전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결감하였다.

조선에서 창시되던 시기는

제국주의자들이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침략과

약탈에 미쳐 날뛰고 있던 때였다.

선군사상은 조선혁명의 기본

파업이 일제를 쳐부시고 나라

와 민족을 해방하는 것이였던 당시의 사회력사적조건을 반영하여 창시되었다.

조선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애국자들은 『실력을 배양』하고 『청원』과 『외교』의 방법으로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조선인민의 밤투쟁은 결출한 혁도자를 모시지 못한 탓에 실패를 거듭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밤일민족 해방운동의 이현의 퍼의 교훈으로부터 무장투쟁으로써 만만조선을 해방하고 혁명을 전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결감하였다.

조선에서 창시되던 시기는

제국주의자들이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침략과

약탈에 미쳐 날뛰고 있던 때였다.

선군사상은 조선혁명의 기본

파업이 일제를 쳐부시고 나라

와 민족을 해방하는 것이였던 당시의 사회력사적조건을 반영하여 창시되었다.

조선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애국자들은 『실력을 배양』하고 『청원』과 『외교』의 방법으로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조선인민의 밤투쟁은 결출한 혁도자를 모시지 못한 탓에 실패를 거듭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밤일민족 해방운동의 이현의 퍼의 교훈으로부터 무장투쟁으로써 만만조선을 해방하고 혁명을 전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결감하였다.

조선에서 창시되던 시기는

제국주의자들이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침략과

약탈에 미쳐 날뛰고 있던 때였다.

선군사상은 조선혁명의 기본

파업이 일제를 쳐부시고 나라

와 민족을 해방하는 것이였던 당시의 사회력사적조건을 반영하여 창시되었다.

조선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애국자들은 『실력을 배양』하고 『청원』과 『외교』의 방법으로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조선인민의 밤투쟁은 결출한 혁도자를 모시지 못한 탓에 실패를 거듭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밤일민족 해방운동의 이현의 퍼의 교훈으로부터 무장투쟁으로써 만만조선을 해방하고 혁명을 전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결감하였다.

조선에서 창시되던 시기는

제국주의자들이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침략과

약탈에 미쳐 날뛰고 있던 때였다.

선군사상은 조선혁명의 기본

파업이 일제를 쳐부시고 나라

와 민족을 해방하는 것이였던 당시의 사회력사적조건을 반영하여 창시되었다.

조선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애국자들은 『실력을 배양』하고 『청원』과 『외교』의 방법으로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조선인민의 밤투쟁은 결출한 혁도자를 모시지 못한 탓에 실패를 거듭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밤일민족 해방운동의 이현의 퍼의 교훈으로부터 무장투쟁으로써 만만조선을 해방하고 혁명을 전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결감하였다.

조선에서 창시되던 시기는

제국주의자들이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침략과

약탈에 미쳐 날뛰고 있던 때였다.

선군사상은 조선혁명의 기본

파업이 일제를 쳐부시고 나라

와 민족을 해방하는 것이였던 당시의 사회력사적조건을 반영하여 창시되었다.

조선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애국자들은 『실력을 배양』하고 『청원』과 『외교』의 방법으로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조선인민의 밤투쟁은 결출한 혁도자를 모시지 못한 탓에 실패를 거듭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밤일민족 해방운동의 이현의 퍼의 교훈으로부터 무장투쟁으로써 만만조선을 해방하고 혁명을 전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결감하였다.

조선에서 창시되던 시기는

제국주의자들이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침략과

약탈에 미쳐 날뛰고 있던 때였다.

선군사상은 조선혁명의 기본

파업이 일제를 쳐부시고 나라

와 민족을 해방하는 것이였던 당시의 사회력사적조건을 반영하여 창시되었다.

조선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애국자들은 『실력을 배양』하고 『청원』과 『외교』의 방법으로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조선인민의 밤투쟁은 결출한 혁도자를 모시지 못한 탓에 실패를 거듭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밤일민족 해방운동의 이현의 퍼의 교훈으로부터 무장투쟁으로써 만만조선을 해방하고 혁명을 전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결감하였다.

조선에서 창시되던 시기는

제국주의자들이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침략과

약탈에 미쳐 날뛰고 있던 때였다.

선군사상은 조선혁명의 기본

파업이 일제를 쳐부시고 나라

와 민족을 해방하는 것이였던 당시의 사회력사적조건을 반영하여 창시되었다.

조선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애국자들은 『실력을 배양』하고 『청원』과 『외교』의 방법으로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조선인민의 밤투쟁은 결출한 혁도자를 모시지 못한 탓에 실패를 거듭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밤일민족 해방운동의 이현의 퍼의 교훈으로부터 무장투쟁으로써 만만조선을 해방하고 혁명을 전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결감하였다.

조선에서 창시되던 시기는

제국주의자들이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침략과

약탈에 미쳐 날뛰고 있던 때였다.